

Interview_<유토피아 관리: Managing Utopia>

Visual(이하 V): 먼저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정화(이하 정): 개인적으로 비디오 설치작품에 감시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왔죠. 또한 미술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감시에 관한 부분, 여기에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전시로 엮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주제의 전시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학생들이나 다른 작가들과 함께 하고자 했었어요. 가끔씩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학생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었죠. 때마침 작년 전문사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한 책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었어요.

V: 학생들이 먼저 그 책을 읽고 싶다고 제안을 한 것인가요?

정: 내 전문사 스튜디오 수업을 시작할 때 매 학기 책을 한 권씩 정해서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권의 책을 추천을 하면서 공부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죠. 그 당시 내가 제안한 책들 중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있었고, 학생들도 마침 읽고 싶었던 책이라고 동의를 해서 스터디를 한 게 시작이었죠. 이 기회에 전시형태를 결과물로 제안해서 전시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V: 일단 영상물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감시 카메라라는 사물이 지닌 상징성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작업들로 감시 카메라를 비판적으로 은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의도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요?

정: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제의 범위를 넓게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장지아 작가처럼 영상이나 감시 카메라와 같은 정해진 매체에서 벗어나려고 의식한 작가도 있었기 때문이죠. 작가들과 여러 번 회의를 거치면서 주제와 범위의 제한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감시카메라나 영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감시카메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나,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이질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너무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V: 전시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정: 물론 민주적이었죠. 기존에 이미 했던 것은 어쨌거나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식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V: 제목이 <유토피아 관리>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를 합쳐 놓으니 굉장히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정: 맞아요. 뉘앙스를 잘 알아냈습니다. 사실 유토피아라는 단어도 전시에 많이 사용되어왔죠. 관리라는 단어를 병치하고 그 충동을 느꼈어요. 전시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관련된 영어와 한글들을 나열하면서 단어놀이도 좀 했었죠. 그 당시 언급되었던 제목들 중에 ‘빅 브라더’도 있었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등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어요. 관리, 컨트롤, 보호와 관련지으며 찾아보

던 중 유토피아라는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목을 정하게 됐죠.

V: 전시의 주제가 사회 비판적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 문제가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잘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안전이라는 것이 너무 절실했다 보니 부작용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이로 인해 감시나 컨트롤을 당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중적이예요. 나 역시도 학교 내에서 좋지 않은 일이 터지면 감시 카메라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자라는 입장은 아니고 그 자체를 좀 더 의식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이 되고 더 많은 장치들이 설치 될 때 이런 점들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문제 또는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과 모르거나 무심히 지나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V: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서 비판의 강약을 조절 하신 건가요?

정: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의견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런 의식에 대한 환기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여러 작가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작업하였기 때문에 비판의 방식이 달라졌겠죠.

V: 좀 더 강한 어조를 띠었을 때, 비판의 수위를 조금 더 높였을 때 관람객들이 전시의 취지를 좀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중도적인 부분도 이해를 했고,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가 강한 작품들도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영상물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조를 좀 강하게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 그런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강한 어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힘을 좀 빼고 싶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V: 대부분이 영상 작품이지만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람객들이 관람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이해하는데 난해하기도 해서 영상 작품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데 개인적으로 이례적인 경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시를 기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다는 점은 나도 신기해하는 점입니다. 관람 시간 때문에 전시장에서 영상 작업을 감상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생각했죠. 공간을 배려하고 의자도 많이 냈고. 그래서 결국 서비스 좋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작품 러닝 타임도 짧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작품들이 그런 점을 잘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옥정호 작가의 <일심동체>와 같은 작품이 그런 작품이겠죠. 누가 봐도 동의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한요한 작가의 작품도 그렇죠.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굉장히 빨리 와 달고 재미있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그

런 작품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제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심도 있게 풀어내는 작품들도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또 오브제 작업이나 사진 작업도 있어서 다양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해요.

V: <Pretty Good Look>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사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는데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곳곳에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들을 잘 배치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정: 바로 이 부분이 비판적인 어조가 더 강해야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잘 발달이 되어서 의심스러운/위험한 사람들을 짚어내는 것이 손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걸모습만 보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많고, 어떤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여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할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선별 기준이 명확한 듯 여겨지고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또 6명의 인원과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름 좋은 작업이 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해요. 모니터링 팀(팀의 이름)을 만들어서 매번 실제상황을 이끌어내는 퍼포먼스, 예를 들어 경찰 복장으로 시민들 신분검사를 하고 임의의 사람을 미행하는 것들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도 했죠. 여기서 편집 시에 영화에서 차용한 부분, 연기를 하여 만들어 넣은 장면도 있어서 구성이 굉장히 입체적이었어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작품이 괜찮았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만나서 진행을 했어요. 작품도 재미있었지만 작품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사실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V: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옳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Pretty Good Look>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잘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는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막연하게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실제로 벌어져서 놀랐던 상황도 있었어요. 몇 가지 단순한 관념을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쉽게 의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험과 기록과 작품이 다 같이 가게 되어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시민운동의 하나로, 개인들이 국가적 비밀경찰로부터 그들 메일의 커뮤니케이션의 안전을 위해 암호화할 수 있게 한 “Pretty Good Privacy”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는 사람들은 작품의 제목에서 그걸 떠올릴 것 입니다.

V: 전시를 관람하는 중간 중간에 플래시가 터지면서 찍히는 몰래카메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감시 카메라와 같은 시스템에 노출되는 상황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요.

정: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나왔던 규율에 관한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다루었던 주제가 광범위하다는 점이 이런 부분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생활의 침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관음적

인 행동까지 고려를 했어요. 오히려 자기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빅 브라더'라는 TV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제를 좀 더 유연하게, 광범위하게 가고 싶었어요. 특히, 감시도 있었지만 훈련이나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컨트롤 되고 있기도 하고, 사회 제반 제도들에 의해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규율·장치" 작업은 규율 장치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랙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장 안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되는 실제 상황을 경험케 하여 이러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어요. 우리들이 어떤 식의 훈련에 얼마나 적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벌칙 역시 불쾌감을 느끼게끔 하기보다 자기 얼굴이 몇 초 동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오히려 기분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느끼기보다 즐겁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묘하게 섞이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V: 전시 연출, 저는 디스플레이라기보다는 연출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갤러리 175가 이번처럼 스펙터클하게 연출 된 적이 없었어요. 가벽을 세워서 공간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이 서로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 숨통을 틔워 주듯이 캔버스에 가벽을 치되 위와 아래를 터주셨고,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절감하는 효과도 보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정: 학생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예산의 부족이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들이 돈이 없을 때 머리를 쓰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시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료를 각목과 캔버스 천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건축하는 친구와 <Triple Reality>라는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가는 각목들을 세워서 창의적으로 건축적인 구조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큐레이터가 아니니까, 또 큐레이터의 역할을 전혀 하기 싫었고, 기획자라는 것도 내세우기 싫었어요. 다만, 아까도 민주적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학생과 선생의 위계 없이 동등한 입장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내 주위 사람들 중에 이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작업이 있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자 했죠. 이렇게 작가들을 모으다 보니 숫자가 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참여 작가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175에서 어떻게 전시를 할까 하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작은 방들을 만들어서 집에서 TV를 보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죠. 좁은 공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사운드가 있는 영상작업들이 서로 그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좀 했죠. 그 문제는 모든 영상작업의 텍스트를 자막으로 넣어서 해결을 했어요. 서로 사운드를 줄이고 웅얼거리는 정도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이 공간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었어요. 작가들 중 벤덤의 파놉티콘 구조로 공간을 짜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방사선형으로 공간을 짜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는 관람객들의 동선을 중점적으로 생각했죠. 공간들이 약간 사선인데 그 꺾이는 지점들을 재미있게 하려고 했어요. 한 방향으로 각 방을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뒤로 돌아 나오면서 중간으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동선.

V: 세심하게 고려되어서 모든 작품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부각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_신의철 작가의 작업 <사각지대>가 재미있었어요. 작품 주제가 사각 지대에 관한 것인데 작가 스스로가 전체 공간 중 사각 지대에 자신의 작품을 설치하고 싶어 했어요. 마침 공간 구성을 보면 사각 지대처럼 잘 안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잘 들어갔죠. 또 각목으로 공간을 구획한 뒤 캔버스 천으로 가벽을 만들 때 위아래가 보이게끔 한 것도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었었지만 감시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어 의도했어요. 원래는 관람객 머리와 다리가 보이도록 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관찰하고, 또 누군가에게 관찰 당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막상 디스플레이를 할 때 위를 너무 낮추어 버리니 조형적으로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쪽은 180cm까지 올렸고 아래를 더 많이 터 주었죠.

V: 기금 신청을 하셨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 서울문화재단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지원을 받아서 작가들에게 작품 제작에 드는 지원금도 주면서 전시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기대처럼 되지 않았어요. 특히 올해는 단체 전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V: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정: 사실 모자란 부분이 많았지만 다행히 삼성에서 모니터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훨씬 많죠. 그렇지만 우리 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가벽 설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곳에 유용하게 썼어요. 또 기자재와 같은 지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V: 전시 지원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원금에 대해 학교 측이 생각하는 지점과 학생들이 예산 지원을 받을 때 체감하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가는 작품 제작에 따르는 비용까지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학교 측은 작품은 작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화나 조각 작품, 넓게는 영상 작품은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일회적인 성격의 전시나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받아도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다양한 작업을 하라고는 하지만 토대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그렇죠. 우리 전시 주제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상황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서류 적으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런 부분은 조형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개입된 제도적인 기관들에서는 의례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일 좋은 건 돈을 주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방식이죠. 작가가 제일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두고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다행히 우리 전시에서는 구조물이 일단 제일 중요했었고 이 부분은 학교 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작가들에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진행했어요. 처음부터 예산 규모를 언급했고 구조물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은 명확했기 때문에 돈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봤어요. 카탈로그는 양해를 구했어요. 대신 post-production, 즉 전체 전시 기록한 영상물을 DVD로 제작을 해 두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연속된 전시를 하게

되어 책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때 기록을 다시 하자는 얘기도 했죠.

V: 그러면 후속 전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정: 네.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고 여력이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어요. 새로 참여하는 작가들의 호응도 필요할 거고. 머릿속에 생각만 있어요.

V: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 감시 카메라 위주의 이야기 말고,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감시되고, 인터넷이나 위공위성 등을 통해서 다루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데이터나 내용들을 가지고 더 재미있는 작업들로 전시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토피아 관리라는 제목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부제를 달겠죠. 주변 상황이 마련되면 가능성은 있어요.

정리: 오경미